

스티그마와 카리스마
코로나-19 위기 시기 신천지의 정치신학

Stigma and Charisma: The Political Theology of Shincheonji Amid the COVID-19 Pandemic Crisis

백승기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

초록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OVID-19 팬데믹 시기, 한국의 신종교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한국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사회적 낙인을 받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신천지의 대응 양상을 종교적 서사와 정치신학 담론 전략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국내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이후, 한국 언론은 신천지를 방역 비협조, 은폐,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묘사하며 반사회적 집단이자 '사회적 바이러스'로 규정하였다. 본 논문은 어빙 고프먼의 낙인 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언론 담론 속 신천지의 이미지 구성을 분석하며, 신천지가 자체 매체인 「천지일보」를 중심으로 신도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부 방역 정책에 순응하거나 혈장 공여 캠페인과 같은 공공 기여 전략을 구사하며 낙인에 대응한 방식을 구조화한다. 또한 신천지가 대척점에 선 주류 개신교를 오히려 반사회적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신자 증가 현상을 종말론적 섭리로 해석하는 종교적 재서사를 통해 사회적 타자화에 저항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신종교가 낙인 상황에서 종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내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신천지, 신종교 정치신학, 코로나-19, 사회적 낙인, 천지일보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es of public stigmatization and strategic response involving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commonly known as Shincheonji), a new religious movement in Sou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m 2020 to 2022. Following the revelation that South Korea's 31st confirmed COVID-19 case was a Shincheonji member, the Korean media portrayed the group as a non-cooperative, secretive, and socially dangerous entity, labeling it a "social virus." Drawing on Erving Goffman's theory of stigma, this paper analyzes how media discourse constructed Shincheonji as a public threat, and how Shincheonji countered this stigmatization through a series of religious and political strategies. Focusing on Shincheonji's internal newspaper *Cheonji Ilbo*, the study explores the group's narrative framing, which depicted itself as a victim of irrational persecution, emphasized divine provid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and reinterpreted rising membership as eschatological evidence. Shincheonji also adopted conformist tactics such as cooperating with public health authorities and organizing large-scale plasma donations, while simultaneously reframing rival Protestant groups as socially deviant. This case study illustrates how stigmatized new religious movements deploy complex religious mechanisms to maintain legitimacy and cohesion in hostile social environments.

key-words: Shincheonji, Political theology of NRMs, COVID-19, Social stigma, *Cheonji Ilbo*

I. 들어가는 글

1984년 등장한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모락’ 전도를 통해 꾸준히 교세를 늘려오던 그리스도교계 신종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교조이자 총회장인 이만희(李萬熙, 1931-)가 국내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이었다. 같은 해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가 주도의 신속한 대처와 위기관리, 국민의 일사불란한 협조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인 방역 성공 사례로 꼽혔던 대한민국 보건 당국은 부분적으로 이동제한을 실시하거나 아예 집단 면역을 실험하는 일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취합한 뒤 확진자의 동선을 뽑아내는 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체계는 자연스레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접촉자 명단 중 한 명이라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과 장소 유형, 구체적인 상호명과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등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식을 따랐다.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대한민국의 ‘투망식’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개인보다 집단, 부분보다 전체를 우선하는 시민의식 덕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2월 18일 ‘슈퍼 전파자’로 분류된 대구의 61세 여성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몰래 두 차례나 신천지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31번 확진자’로 불린 해당 여성은 2월 초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을 감추고 신천지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밝혀졌고, 그때까지 일부 개신교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간간이 강단이나 지상(紙上)에 오르내리던 신천지라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마저 낯선 ‘사이비’ ‘신흥종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와 질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¹⁾ 그녀는 뒤늦게 대구 수성구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후 양성으로 판명나면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 수용되었다. 문제는 그녀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약 10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 기간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두 차례나 신천지 다대오지파²⁾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호텔 뷔페를 즐기거나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대구뿐 아니라 경상북도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후 그녀가 출석했던 신천지 교회에서 최소 23명의 감염자가 추가 발생하자 그때까지 견고하게 버텨온 방역 체계가 겉잡을 수 없이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확산 시기’의 책임을 물으며 성난 여론은 이만희를 대중 앞에 소환했고,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이만희는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신천지 연수원 마당에 몰려든 각종 언론사와 기자단 앞에서 구순의 노구를 이끌고 두 차례나 큰절을 올리는 희대의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자 질병관리본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이례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을 직접 언급하며 ‘신천지 특단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문 대통령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신천지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신천지 신자들을 전수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2월 22일에는 청와대 신문고에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여 기간 동안 1,449,521명이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³⁾ 다음 날(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

1) ‘사이비(似而非)’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이교(異教)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유사종교 집단을 일컫는 명칭으로 국내 주류 개신교 단체들이 자신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신종교나 종파운동을 타자화할 때 꾸준히 활용되어왔다. 이는 또 다른 명칭인 ‘신흥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학술용어로 사용하기에는 특정 단체나 일부 진영의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간 개념이기에 이후 본 논고에서는 개신교 단체가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타자화 전략의 하나로 언급될 때만 두 용어를 제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신천지는 전국 권역을 12개 지파로 나누어 관리한다. 후술하겠으나 ‘십사만사천’과 ‘12지파’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종말론과 구원론 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신천지야말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를 가르치는 전형적인 배타주의적 신학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십사만사천과 12지파에 들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3) 청원인은 신천지를 일본의 옴진리교처럼 반국가단체이자 반헌법단체로 규정하며 “만약 이 청원을 삭제한다면 정부 내 신천지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개시된 지 하루 만에 정부 답변을 받는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덩달아 25일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보하라고 명령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부로 14일간 신천지 관련 시설 강제 폐쇄 및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명단이 유출돼 강제 휴직과 모욕, 퇴직 등 압박이 벌어지고 있으니 신천지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 달라.”며 시민들에게 읍소했으나 폭주하는 여론과 싸늘한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3월에 접어들며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점차 장기화할 기미를 보이자, 각종 언론과 TV 방송사는 앞다투어 신천지를 ‘기이한 집단’ 내지 ‘몰상식한 신앙인’으로 노골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⁴⁾ 자극적인 내용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SNS나 게시판 댓글들을 중심으로 신천지에 ‘사회적 바이러스’나 ‘오물’, ‘암 덩어리’ 등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따라붙었고, ‘신천지 확진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루머를 퍼다 나르며 음모론을 증폭했다. 실제로 일부 성난 시민들은 폐쇄된 대구교회 입구에 달걀 껍데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을 투척하여 저간의 음모론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신천지는 총회장의 구속과 교단의 해체를 입에 담는 일부 언론의 위협 속에 당장 생존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내부에서는 탈퇴자나 개종자 등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를 중심으로 이탈과 고발이 이어졌고,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신천지 신도도 나왔다. 외부에서는 2012년 이후 ‘신천지 OUT’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기독교방송(CBS)과 국내 주류 개신교단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⁵⁾ 내우외환의 백척간두에 올라선 신천지는 크게 세 단계로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응 전략을 짰다. 첫째,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외적으로 빠르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신천지가 사회적 압력에 맞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정상적인 종교단체임을 스스로 입증해 내는 전략이다. 둘째,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이들을 중심으로 보건 당국에 혈장을 공여하며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에 협조하고 있다는 친(親)사회적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전시하는 전략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간 반사회적이고 가정 파괴적인 집단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신천지가 대외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희구해 오던 사회 정체성이었다. 셋째, 주일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온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의 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리어 친정부적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신천지가 가진 사회적 낙인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동시에 신천지는 내부의 긴장과 의심 역시 세 단계 전략으로 해소했다. 첫째, 외부의 거센 공격과 사회적 낙인을 종말론적 시간표 위에서 이미 예고된 성스러운 박해로 해석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틀림 없이 성취될 것이며 구원의 여정에서 십사만사천이 응당한 고난을 거치는 운명은 불가피하다는 신학이 동원되는 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기관지 「천지일보」가 맹위를 떨쳤다. 둘째, 신천지가 대한민국의 영적 거듭남과 죄씻음을 위해 희생양으로 구별되었다는 종교적 서사를 「천지일보」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종교의 자유나 보편 인권, 시민권 같은 이슈를 거론하며 신천지의 평화운동 행보를 대대적으로 전시하고 세계 유명 인사나 종교계 인사들에게서 답지한 항의 서한이나 성명서를 함께 게시하는 전략이다. 셋째, 거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오히려 늘었고 낙인의 진원지인 대구에서 ‘십만 성도 수료식’을 개최함으로 신자들에게 이만희의 카리스마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낙인에 맞서 신천지가 내부의 신자들을 결속하고 외부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낙인을 전복하려는 신천지의 복잡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낙인 이론(theory of stigma)을 논리적 바탕으로 끌어와 2020년 2월 1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46일 동안⁶⁾ 「천지일보」에 실린 사설과 기사, 논평, 특집 등을 분류하고 매체비평을 시도했다.⁷⁾ 국내에서 팬데믹이나

4)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MBC의 대표적인 장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3월 10일 「코로나와 신천지: 십사만사천 명의 비밀」로 포문을 열었고, 일주일 뒤인 17일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을 연이어 송출했다. 두 번의 방송을 통해 ‘PD수첩’은 공개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묻는 희생 제단에 신천지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3월 10일과 24일, 종편 방송사인 채널A도 ‘풍문으로 들었SHOW’를 통해 신천지 교조 이만희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다수의 연예부 기자를 패널로 두고 텐사 형식의 토크쇼를 진행했다. 3월 15일과 22일 2주에 걸쳐 종편 방송사인 JTBC 역시 ‘막나가쇼’를 통해 신천지의 독특한 포교 방식을 영화 「트루먼쇼」에 빗대거나 신천지 신도가 말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천지를 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부분은 매체비평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5) 변상욱, 「CBS “신천지 OUT”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 및 과제」, 『기독교사상』 706 (2017): 19-27.

6) 본고가 이렇게 비평 기간을 길게 특정한 이유는 대구의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천지일보」가 코로나-19에 관한 기사를 마지막으로 내놓은 시점인 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사회적 아노미 상황에 놓인 여타의 신종교가 조립해 내는 서사와 메시지에 종교사회학적 관점으로 매체비평을 감행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지금까지 신천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주류 개신교 신학을 옹호하고 신천지를 ‘이단’ 내지 ‘사이비’로 규정하는 신학 담론의 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⁸⁾ 해당 연구들은 신학이 제공하는 규범적 입장(prescriptive position)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신천지를 타자화하는 전략 위에서 생산된 논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전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졌다.⁹⁾ 반면 2020년 2월 17일 이후, 신천지가 대중의 관심사로 급부상하면서 신학 이외 다른 학제에서 비로소 기술적 입장(descriptive position)을 대변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종교학과 사회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등 여러 학제에서 신천지 관련 연구가 나왔는데, 주로 신천지 개종자의 심리 유형을 분석하거나 언론 프레임과 귀인 특성을 들여다 본 논문들이다.¹⁰⁾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신천지 관련 연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 국내만의 사정은 아니다. 해외 학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대표적 신종교 운동의 하나로 신천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 여러 편 나왔다.¹¹⁾ 국내 신학계에서 생산한 논문과 달리 종교학적 관점을 지향하는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신종교연구센터(CESNUR)를 창립한 이탈리아의 종교사회학자 마ッシ모 인트로비네(Massimo Introvigne)¹²⁾나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의 메리 브릭스(Mary F. Briggs)¹³⁾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신천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대한 신천지의 대항담론(counter-narratives)을 매체비평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여태껏 없었다. 이는 본고가 지난 학술적 의의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천지의 출현과 요한계시록의 실상

코로나 시기에 작동한 신천지의 정치신학을 이해하려면 이만희와 신천지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신천지 교조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에서 10남 1녀 중 6남으로 태어났다. 정명석

정부는 2022년 4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 해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듬해인 2023년 5월 6일부터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 7) 고프먼의 낙인 이론을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보인 탈퇴와 항의, 충성이라는 세 가지 상반된 행동양식을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려면, 한준형 and 설동훈, “낙인찍힌 사람들의 행동 전략: 신천지 교인 사례 연구”,『지역과 세계』 46/1 (2022): 231-269.를 보라.
- 8)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정창균, “신천지 이단의 성경해석과 설교적 대응”,『설교한국』 4/1 (2012): 27-76.; 박태수, “복음 방 교육에 나타난 신천지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조직신학연구』 21 (2014): 169-196.; 이희성, “신천지 구약 해석의 실상과 허상”,『개혁논총』 30 (2014): 93-126.; 탁지일, “한국 이단의 세례요한 이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신천지의 교리와 계보를 중심으로”,『신학사상』 177 (2017): 169-197.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출간된 단행본으로는 최삼경 외,『이단 신천지 대처법 A to Z: 신천지 대처 드림팀의 종합 매뉴얼』(안양: 기독교포털뉴스, 2013); 한창덕,『신천지 비판: 사이비 신천지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교리에 대한 명쾌한 논박』(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현대종교편집국,『신천지의 정체: 현대종교 이단사이비 자료집』(서울: 현대종교, 2014); 이금재,『신천지 팩트체크』(서울: 바오로딸, 2019); 정윤석,『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 이단 추수꾼 대책 종합 매뉴얼 A to Z』(수원: 기독교포털뉴스, 2019) 등이 있다.
- 9) 대표적인 사례로는 탁지일, “신천지와 코로나 19”,『기독교사상』 736 (2020): 52-59; 김대웅, “신천지 이단의 성경 왜곡 비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신학지남』 89/4 (2022): 7-32. 등이 있다.
- 10) 코로나-19가 창궐한 시점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정명화와 강천구의 논문에 따르면, 총 31편의 관련 논문 중에서 7편 정도의 논문이 신학이 아닌 대안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정명화 and 강천구, “신천지 연구의 동향과 실천신학적 연구의 방향성”,『신학논단』 108 (2022): 127-160.를 보라. 신천지를 바라본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창숙 and 흥원식, “질병재난에 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과 귀인 특성 연구: 코로나-19 ‘대구 신천지’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사회과학연구』 40/3 (2021): 245-286.를 보라.
- 11) 대표적으로 Oliver Koch, “Shinchonji und das Corona-Virus: einebrisante Mischung,” Corona und Religionen (2020): 71-88.; John G. Grisafi, “A marginal religion and COVID-19 in South Korea: Shincheonji, public discourse, and the shaping of religion,” Nova Religio 25/1 (2021): 40-63.; Mary F. Briggs, “Faith or Family? How Shincheonji Church of Jesus Members Navigate the Tragic Dilemma Between Religious Commitment and Filial Familism,” Nova Religio 28/3 (2025): 7-29. 등이 있다.
- 12) Massimo Introvigne, “Killing the Competition: Opposition to Shincheonji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25/1 (2021): 14-39. 인트로비네는 내한하여 이만희와 직접 인터뷰도 가졌고 그 내용이 2020년 5월 12일자 「천지일보」에도 실렸다. 최근 인트로비네의 논의를 비판한 이성철의 논문도 참고하라. Song Chong, Lee, “The Violence of New Religious Movements and the Entrepreneurial Model: With a Focus on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in Korea,” The Journal of Religion 103/3 (2023): 313-337.
- 13) Mary F. Briggs, “The Unsettled Church and State: The Case of Shincheonji and Covid-19 in South Korea,” Ubiquity Proceedings 2/1 (2022): 67-73.

이 출생한 충청남도 금산군 월명동(달밝골)을 성지화해 온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와 달리, 신천지는 지리적 정위(定位)로써 생가(生家)가 아닌 시간적 정향(定向)으로써 조선 왕조라는 혈통, 즉 이만희가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9대손’이라는 족보상 가계(家系)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대신해 ‘영적 이스라엘’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여느 국내 그리스도교계 신종교 교조의 전형적인 신화화 구조와 그 맥을 달리한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 신앙심이 깊던 조부가 며느리(이만희의 친모) 배에 빛이 가득 비추는 태몽을 꾼 후 ‘만희(萬熙)’라는 태명을 지었다는 전설은 왕가의 자손으로서 그의 사명을 예언처럼 전시(前示)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만희는 19세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해 7사단 보병부대 하사로 제대하기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와 전우들의 참담한 죽음을 목도한다. 신천지는 당시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장차 이만희가 세계평화운동을 결행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흥보한다.¹⁶⁾ 이만희는 평소 종교적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큰 별을 삼일 연속 본 이후로 알 수 없는 팁박이 시작됐다고 한다. 팁박이 너무 거세 죽으려고 산에 올랐다가 영인(靈人)을 만나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본격적인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다. 1957년경, 이십대의 이만희는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촌에 들어갔다가 약 11년 동안 살았으며, 1967년, 삼십대 중반이 되어 우연히 부천 오류동에서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장막성전에 입교한다. 장막성전은 신천지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는 유인구와 그의 아들 유재열을 비롯한 일곱 천사의 신적 정통성을 오늘날 이만희 자신이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⁷⁾ ‘증거장막성전(證據帳幕聖殿)’이라는 신천지의 명칭에서도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그 신학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후 유재열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징역살이까지 했던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세우고 총회장을 중심으로 일곱 교육장, 12지파장, 행정을 담당하는 24장로를 두었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가감 없이 ‘실상’¹⁹⁾ 그대로 해석하는 지구상 유일한 교회라고 흥보한다. 장막성전 유재열의 예언 해석을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한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등장하는 모든 예언이 각 시대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록된 모든 비유와 사건은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 이만희 자신을 통한 구원의 순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엇보다 실상 예언의 정확한 해석은 오로지 이만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사11:4)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한국에서 신천지를 통해 인류 역사를 끝낼 마지막 심판의 소식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일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다’(계14:20)는 예언에서 직경 일천육백 스다디온이 천 리쯤 되는데 피가 이쪽저쪽 양쪽으로 퍼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략 남한의 길이(이천 리)에 버금간다고 해석한다.²⁰⁾ 동방의 의인과 관련한 해석은

14)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나님의교회가 교조 고(故) 안상홍이 ‘다윗의 위(位)’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백승기, “종파(sect)의 형성과 ‘영향의 불안’: 하나님의교회세계선교협회와 분파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8 (2025): 1-37.

15) 참고로 세속의 이름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은 국내 여러 신종교에서 교조를 신화화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어온 전략인데, 기독교복음선교회(설립)는 오랫동안 교조의 이름을 이니셜로 JMS라 부르고 각기 Jesus, Messiah, Savior로 풀이했고, 하나님의교회 역시 한때 교조의 이름인 거문고 소리 ‘상(商)’과 큰 물 ‘홍(洪)’을 풀이하며 교조 안상홍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탄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탄는 것 같더라.”(계14:1-2)라는 말씀을 응(應)하여 이 땅에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6) 흥미로운 점은 JMS 정명석 역시 백마 9사단 28연대에 배속되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흥보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1966년 8월 30일부터 1967년 9월 24일까지 13개월 동안 1차 파병, 1968년 2월 18일부터 1969년 3월 4일까지 13개월 동안 2차 파병에 참여했다. 전설에 따르면, 정명석이 배속된 부대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그 흔한 사상자 한 명 없었다고 한다. <https://www.god21.net/AboutJms/Jms/mov/View/58382>

17) 유인구(임마누엘)는 장막성전을 설립한 인물이며, 그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리더였던 유재열(삼손)을 비롯하여 김창도(미가엘), 정창래(사무엘), 신광일(여호수아), 백만봉(솔로몬), 김영애(디라), 신종환(모세)은 ‘일곱 천사’로 불렸다.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1971년, 이만희가 장막성전의 타락과 부패상을 지적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고, 1977년, 제주도를 다녀오는 길에 영인(靈人)의 지시를 따라 장막성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1980년,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해체한 뒤 교회 시설을 장로교에 넘기는 면면을 목도하며 이만희는 계시록에 예언된 진리의 무리가 훼절했고 그 뒤를 자신이 이었다고 해석한다. 이 과정은 김건남 and 김병희, 『신탄(神誕)』(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85)에 자세히 나와 있다. 신천지는 오늘날도 일곱 천사가 이끌던 장막성전이 출현한 시점을 계시록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과천 청계산(淸溪山)의 ‘계(溪)’ 자가 ‘시내’를 의미하므로 한국의 시내산이며 이만희가 청계산에서 계시록을 푸는 열쇠를 받았다고 본다. 물론 시내(Sinai)산은 성경 지명이며 우리말의 ‘시내’와는 무관하다.

18) 배철현은 신천지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명칭을 ‘도용’했고, 교리와 구조를 ‘차용’했다고 평가한다. 배철현, “재림주의와 ‘위대한 실망’: 윌리엄 밀러(1782-1849)와 유재열(1949-)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4 (2013): 1-19을 참고하라.

19)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實相)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만희를 통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되었는가?’를 말한다. 신천지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예언을 가감(加減)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이만희 뿐 아니라 천부교(신양촌)의 박태선(朴泰善, 1917-1990), 하나님의교회의 안상홍(安商洪, 1918-1985), 통일교의 문선명(文鮮明, 1920-2012), 재림예수교회의 구인회(具仁會, 1941-1976), 한농복구회(돌나라)의 박명호(朴鳴呼, 1943-), JMS의 정명석(鄭明錫, 1945-) 등 국내에서 발흥한 교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²¹⁾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교와 무관한 비본질적인 주제들이 교조의 절대성과 신적 권위를 증명해준다는 식의 해석으로 둔갑했다. 이를테면, 자칭 ‘재림예수’로 활동했던 구인회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사과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을 상징하며, 태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역시 이러한 습합적 성격을 보인다. 신천지는 오늘날 괴서(怪書)의 하나로 분류되는 『격암유록(格庵遺錄)』을 들어 일찍이 신천지가 정확히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²⁾ 이에 대해 허호익은 이만희뿐 아니라 신양촌의 박태선이나 영생교의 조희성(曹熙星, 1931-2004) 역시 『격암유록』을 인용하여 자체 종교단체에 예언적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고 주장한다.²³⁾

이만희의 실상 예언의 해석은 십사만사천으로 귀결한다. 천상에 있는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 삽사만사천은 이 땅의 십사만사천,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진 자들과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만희는 이를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神人合一體)’라고 주장한다.²⁴⁾ 이렇게 영육이 합체된 십사만사천은 신랑과 신부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천 년 동안 하늘에서 전 우주의 거민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이만희와 함께 십사만사천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에 흰옷을 입은 무리(계7:9-14)가 수많은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셀 수 없이 몰려올 것이다. 결국 구원받은 신천지 신도는 악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것이기에 십사만사천에 들어가는 것은 일생일대의 과업이 될 수밖에 없다. 시험을 치르는 전반적인 방식, 이를테면, 수험생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에 오와 열을 맞춰 앓은 모습, 흰색 상의를 맞춘 드레스코드, 심지어 시험관들이 일렬로 지나가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험지를 절도 있게 나눠주는 방식까지 흡사 조선 시대 과거(科擧)에 임하는 선비들을 연상케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 이 천년왕국은 이미 1984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다.²⁵⁾

신천지의 예언 해석만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모략(謀略)’이다. 신천지는 복음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하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롬3:7)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신천지는 모략 전도를 활용하여 주류 교회의 신도들을 타깃으로 위장 교회를 세우거나 성경 공부를 가장한 모임을 조직하고, 심지어 여러 명의 추수꾼을 동원하여 포교 대상자를 복음방으로 끌고 간다. 이러한 신천지의 모략 전도 과정은 코로나-19 사태가 증폭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불거졌다.

III. 스티그마: 매체 담론이 규정한 사회적 낙인

‘연극적 자아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자신의 주저 『스티그마: 손상된 정체성 관

20) 이만희,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안양: 도서출판 신천지, 1985), 225.

21)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언약으로 펼친 교단, 세례 요한의 제단이 어찌하여 성경의 예언적 배경 없이 출현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일곱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는 동방의 해 돋는 나라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할 자는 동방에서 부름을 받는다. … 아시아의 땅 모퉁이 작은 반도여! 이 엄청난 축복과 경이로운 사건을 뉘라서 부인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를 동방에서 시작하셨음을 주목하시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이가 누구인가?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일상의 바람이라면 시작점 알파에서 마치는 자리 오메가는 본래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한 자리 동방에서 또한 마무리 짓는다.” 이만희, 위의 책, 31.

22) 신천지는 대표적인 구절로 ‘사시사철 봄철인 신세계에는 불로불사 인생이 늘 청춘이다(四時長春 新世界 不老不死 人永春).’ ‘천도로 밭을 가는 무릉도원에 거하는 인민은 근심 걱정이 없다(天道耕田 武陵挑源 此居人民 無愁慮).’ ‘태고 이후 처음의 낙도와 죽음의 끝에 영생이 시작되는 신천지다(太古以後 初樂道 死末生初 新天地).’를 꼽는다. 해당 문구는 실제로 가평 연수원에도 안내문으로 게시되어 있다.

23) 허호익, “격암유록의 위조와 기독교 이단들의 종교혼합주의”, 『장신논단』 36 (2009): 41-70. 허호익은 조선 후기 등장한 『정감록』을 모방한 일종의 도참서로 『격암유록』을 격암 남사고(南師古)의 저서가 아닌 신양촌 신자가 조작한 위서(偽書)로 단정한다.

24) 한동안 신천지는 교적부에 등록된 인원이 십사만사천까지 차면 영계에서 대기하고 있던 십사만사천의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된다고 가르쳤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구생을 포함하여 신천지에 교적을 둔 신도 수가 이미 30만 명을 넘어버린 이후에는 십사만사천이 전도의 열성과 헌신의 기준이 되어 신천지 내에서 신도들 간의 포교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25) 신천지는 교단이 세워진 1984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신천기(新天紀)’로 부르고 각종 출판물에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리에 대한 연구(*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1963)』에서 사회적 낙인이 갖는 사회심리학적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책에서 스티그마,²⁶⁾ 즉 사회적 낙인을 가상적인 사회 정체성과 실제적인 사회 정체성 사이의 괴리로 정의했다.²⁷⁾ 각 사회는 구성원들을 범주화하는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며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속성들의 상보적 집합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규범적 기대에서 벗어난 구성원들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whole and usual person)’의 범주에서 ‘오염되고 할인된 사람(tainted, discounted one)’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²⁸⁾ 이를 고프먼은 ‘낙인’이라고 지칭한다.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낙인이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다. 낙인이 찍힌 개인이나 집단은 갑작스레 주변의 ‘정상인들’에게 쉽게 노출되며, 동시에 결함이 있거나 단점, 장애를 지닌 존재로 규정된다. 사회적 낙인은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 특정 사회 집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찍히지만, 문제는 그 낙인을 개인이나 집단 스스로 내면화할 때다. 이때 개인은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감추거나, 혹 정상인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낙인을 스스로 정당화하며 사회 구조에 대항하기도 한다. 여기서 고프먼은 사회적 낙인이 실제로 개인이나 집단의 실질적인 속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속성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language of relationships)라고 주장한다.

고프먼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천지는 세칭 ‘사이비’ 종교라는 낙인과 함께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고 부도덕하며 부정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도덕적 낙인이 함께 주어졌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재빠르게 신천지를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몰았다. 우선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신속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고, 때마침 국세청은 루머로 떠돌던 총회장 이만희의 교회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신천지를 특별 세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²⁹⁾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갖가지 사회적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신천지가 교회와 교인 정보를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정부는 신천지가 단순히, 주류 개신교가 주장하듯, 비상식적인 조건부 종말론과 비이성적인 광신주의 같은 신학적 이단성을 넘어서 종교와 무관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생사여탈권을 뒤흔드는 도덕적 일탈과 사회 질서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³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책임자는 언론 앞에 나와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신천지를 정부의 방역 시책을 따르지 않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신천지가 전국의 교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고의로 정부의 방역 업무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물어 때에 따라 이만희를 구속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구시장은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위해 쓰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놓은 기부금 120억 원의 수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방역 체계를 방해한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된다면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³¹⁾

사회적 낙인은 정부로부터 언론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보다 치밀하고 정교해졌다.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공중파였다. 국내 대표적인 3대 공중파 방송사인 문화방송(MBC)의 간판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2020년 3월 10일과 17일, 2주 연속으로 「코로나와 신천지: 십사만사천명의 비밀」, 그리고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와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특징부터 신천지 집회가 갖는 독특한 성격, 이를테면, 수천 명이 밀집대형으로 오와 열을 맞춰 다닥다닥 붙어 앉아 예배를 드렸다거나, 예배 도중에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열정적으로 박수치며 “아멘!”을 외쳤다거나, 주중에 한두 번 집회를 갖는 여타 교회와 달리 신천지는 거의 매일 집회와 행사를 갖는, 높은 충성도와 빈도수를 자랑하는 특성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

26) 고프먼은 그리스어 ‘스티그마’가 본래 도덕적 지위에 있어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신체적 표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표식은 신체에 새겨지거나 불로 지져졌으며, 그가 사회적으로 노예나 범죄자, 반역 자임을 알리는 기능을 했다. 스티그마를 지닌 존재는 ‘손상된 자’, ‘의례적으로 오염된 존재’, 특히 공적 장소에서 회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Erving Goffma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1.

27) 고프먼은 책에서 낙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신체적 기형과 같은 외형적 혐오를 줄 수 있는 유형이고, 둘째는 약한 의지, 비정상적인 욕망, 배신적이거나 경직된 신념, 부정직함, 중독과 같은 성격적 흥결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지는 유형이며, 셋째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로 인해 주어지는 유형이다. Goffman, 4.

28) Goffman, 3.

29)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34462>

30) 메리 브릭스의 분석처럼, 이는 이미 신천지를 경계하던 국내 개신교의 우려를 강화했고,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굳혔다.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이러한 반발이 한국 정부와 사회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Briggs, 71.

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3828>

되었다.³²⁾ 심지어 방송은 문제가 되었던 집합건물에 승강기가 단 두 대 밖에 없어 동시간대 수천 명의 유동 인원을 수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승강기 안에서 서로 몸을 밀착해야 했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했다.³³⁾ 어떻게 보더라도 대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인과관계로 묶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코로나와 신천지」는 후속편에 비해 코로나-19 사태보다는 대중이 궁금해하는 소위 ‘사이비’ 신천지의 정체에 관한 다소 자극적인 내용들에 방송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자문과 취재의 대상으로 신천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단상담소 전문가들과 CBS PD를 섭외하다 보니 방송이 국내 주류 개신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낙인을 사실인 것처럼 퍼트리는 대중 매체의 혼한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로 ‘PD수첩’은 코로나 확산과 신천지의 독특한 교리 사이에 일종의 ‘선택적 친화성’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코로나와 신천지」는 단순한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 신천지에 ‘사이비’라는 종교적 낙인을 찍었다. 일례로 신도들이 십사만사천을 채우기 위해 매일 포교 대상자를 만나 전도에 열성을 낸다거나, 철저히 신분을 위장한 채 부도덕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를 ‘복음방’으로 유인한다거나, 교회 내에서 절대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총회장 이만희를 신격화한다는 등 신천지 교리 체계가 전염병이 대구에 퍼지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식이다. 이어 ‘PD수첩’은 신천지 탈퇴자인 이단상담소의 한 관계자의 입을 빌려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려면 대구교회가 그간 은밀히 작성해 온 복음방 수강생 명단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방송이 신천지 신도들을 비이성적인 신념을 고집하는 광신도로 바라보려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사진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만희가 구도와 방식에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연출하려고 긴 식탁에 12지파장과 함께 앉아 찍은 사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신도들에게 전시하기 위해 그가 직접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 심지어 이만희를 ‘만희왕’으로 신격화하는 찬송가 가사까지 언급했다. 직접 ‘세뇌’라는 단어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가급적 높이지 않기 위해 신천지가 신도들을 관리하는 방편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여타 매체를 금한다는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1] ‘PD수첩’ 「코로나와 신천지: 십사만사천명의 비밀」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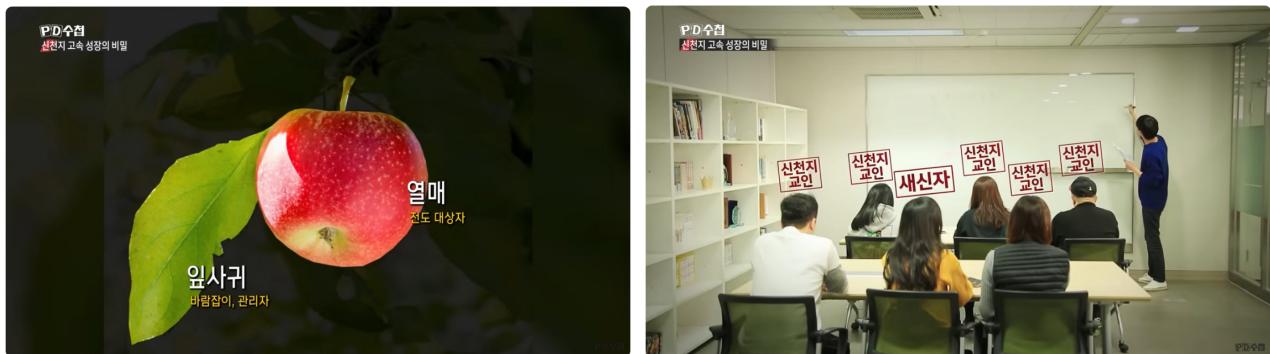
일주일 뒤 ‘PD수첩’은 「코로나와 신천지」의 후속편으로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을 공개했다. 후속편은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숙주 삼아 대구시와 영남권 전체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 신천지의 ‘모략 전도’ 방식을 짚었다. 방송은 소위 신천지 ‘추수꾼’이 취미나 동아리 활동, 요리강습, 설문조사, 심리상담 등을 가장해서 포교 대상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³⁴⁾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면,

32) ‘PD수첩’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도들의 예배 출석을 강조하는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문화와 구조를 설명하며 방송 중에 과거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이종민(가명) 씨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신천지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출석률인데, 아무리 출석률이 낮아도 99% 이상이 되거든요. 대구교회가 만 명이라고 잡으면 99%니까 거의 9천 명 이상이 (한 번에 출석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좁게 예배를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앉으면 바로 옆에 20cm 안팎으로 옆에 다른 사람이 앉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비밀이나 분비물이 털 수도 있고요. (질문: ‘아멘’을 자주 하나요?) 예배 한 번에 70회 정도, 거의 1분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돼요). (‘아멘’을) 엄청 크게 해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https://www.youtube.com/watch?v=3avuc7cqmRc>

33) 또 다른 탈퇴자 신은영(가명) 씨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두 대 안에 정말 빠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정말 바로 옆에 이렇게 완전 쪼그리고 열 몇 명이 완전 빠 소리가 날 정도로 타는데 [코로나] 감염이 안 될까요?”

34) 방송은 상당 부분 신천지 탈퇴자 윤희석(가명) 씨의 설명에 의존한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 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때로 승려나 점술가, 무속인을 가장한 인원의 ‘복술’도 동원된다.³⁵⁾ 이때 전도팀은 승복이나 목탁 등을 구비해 두고 상황을 실제 상황극으로 만들어 서로 연습하기도 한다. 모략 전도의 최종 목표는 대상자가 최대한 의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음방(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사진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PD수첩’은 타깃으로 삼은 신자 한 명을 얻기 위해 여러 명의 추수꾼이 수 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치밀한 전략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을 대역배우로 실제 재연하며 신천지의 포교 방식에서 영화 「트루먼쇼」를 떠올리도록 만들었다. 방송 후반부에 전파연 소속 부모들의 인터뷰를 싣는 것이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로 보고된 대구시 한마음아파트를 신천지 청년 신도들의 집단 합숙소로 규정한 것, 모략 전도로 종교 자유를 침해한 신천지를 상대로 승소한 청춘반환 소송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것, 내연의 관계였다가 신천지를 탈퇴하여 반(反)신천지 활동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³⁶⁾ 대표 김남희 씨와 얹힌 금전 관계를 폭로한 것도 신천지의 치밀한 모략 전도가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을 연상케 한다는 인상을 끌어낸다.³⁷⁾



[사진 2] ‘PD수첩’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의 한 장면

종교학자 에릭 샤프(Eric J. Sharpe)는 종교성을 실존적 차원과 지적 차원, 윤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했다.³⁸⁾ 샤프의 구분을 따르자면, ‘PD수첩’이 2주에 걸쳐 송출한 방송을 통해 신천지에 사회적 낙인을 찍는 구조는 크게 지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라는 두 갈래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PD수첩’은 신천지가 보유한 교리가 주류 개신교의 교리와 다르다는 입장에서 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한 한기총이나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의외로 신천지 대구교회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이나 일부 교인 명단을

천지에서 전화번호를 길거리에서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활동을 하는 방이거든요. (오전) 열한 시까지 어디 대학가 앞에 모여라 해서 밤 열두 시, 새벽 두 시가 될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수집해라. ... 한 명을 전도하는데 여덟 명이나 아홉 명, 열 명 가까이 붙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서 피드백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잎사귀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사람 한 명을 붙여주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고요. ... 바람잡이요. 신천지의 포교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걸 담당하는 바람잡이, 잎사귀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의 교리이기도 하죠. (질문: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신천지 센터 초등 과정부터 거짓말을 가르치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hcuNyzstNCs>

- 35) ‘복치기’라고도 하는 이 전략은 추수꾼과 한패인 신도들이 승려나 무속인으로 가장해 포교 대상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점을 봄주는 활동을 말한다.
- 36)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이만희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과 함께 신천지의 대표적인 외곽조직이다. IWPG는 2013년 여가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할 때까지 IWPG 대표를 맡았던 김남희는 본래 천주교 신자였다가 2002년 신천지에 입교하면서 한때 이만희와 영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신천지 내 2인자로 알려져 있다.
- 37) ‘PD수첩’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편의 제작 목적과 방향은 한학수 PD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천지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측에서는 신도들을 빨리 공개하지 않고 소유한 시설들을 감추면서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나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이 꾸준한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언론의 보도를 문제삼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신천지 측은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모략 전도가 과연 일반인의 상식과 법에 맞는 행동인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 38) 종교성(religiosity) 차원에 관해 에릭 샤프는 종교가 개인의 삶의 의미, 고통, 죽음, 운명 등 실존적 물음에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말해주는 ‘실존적 차원(existential dimension)’과 종교가 인간의 이해와 인식 욕구에 대응하며 우주, 신, 존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지적(intellectual) 차원’, 종교가 제공하는 도덕적 기준과 행동 지침에 대해 말해주는 ‘윤리적(ethical) 차원’, 종교가 공동체적 실천과 조직, 구조, 제도, 전통의 형태로 구현되는 방식을 말해주는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으로 나누었다.

고의로 누락한 것은 방송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단초가 되었던 ‘31번 확진자’의 동선이나 신천지 청년들의 단체 합숙소로 문제가 되었던 한마음아파트 의혹, 신도들의 입단속을 주문하며 당국에 틀린 정보를 제공하라고 종용한 신천지 내부 단톡방 같은 방역 관련 이슈는 아예 방송 중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도리어 방송은 코로나 사태와 크게 관련 없는 총회장 이만희의 개인적인 비위, 또는 횡령이나 정부(情婦) 등 스캔들에 해당하는 도덕적 흥결에 보다 많은 시간 집중했다. 이는 매체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 법적 논리를 설정하고 신천지를 사회의 대척점에 놓인 위험한 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전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관음증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낙인화(stigmatization) 과정이 훌려간 셈이다.³⁹⁾

이 전략은 일찍이 국내 주류 개신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독교방송(CBS)이 보여주었다. CBS는 과거 2015년 3월부터 8부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고발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전력이 있다.⁴⁰⁾ 당장 신천지는 방송 내용이 허위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며 CBS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1심과 2심을 거쳐 2017년 11월 대법원은 방송이 폭로한 신천지의 가정 파괴와 종교 사기, 시한부 종말론 유포, 이만희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종교 자유보다는 방송 내용이 갖는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⁴¹⁾ 반론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유튜브에서 방송 영상을 전부 삭제했던 CBS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신천지가 이슈로 부상하자 다시 한번 유튜브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3월 11일과 23일에 총편 방송인 채널A는 ‘풍문으로들었SHOW’를 통해 이 대열에 동참했다. ‘풍문으로들었SHOW’는 ‘PD수첩’에 비해 예능의 입장에서 훨씬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내용, 연예와 비리, 스캔들 등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십들로 채웠다. 대표적으로 [사진 3]에서 보듯 과거 이만희가 교주로 따랐던 장막성전의 유재열이 가수 싸이의 장인이라는 내용이나, 기자회견 때 이만희가 차고 나온 박근혜 시계와 관련한 음모론을 집중 조명했다. 또한 과천에 들어선 장막성전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이야기, 80년대 신군부가 벌였던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과천이 정비되면서 교회가 헐리고 그 자리에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이 들어섰던 과정도 언급되었다. ‘PD수첩’과 달리 ‘풍문으로들었SHOW’는 천년왕국운동과 시한부 종말론의 맥락에서 신천지가 십사만사천을 이미 2016년경에 완성했으며 그 이후 신도들 사이에서 자신이 십사만사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성 경쟁과 포교에 매진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사진 3] ‘풍문으로들었SHOW’ 232회 한 장면

2020년 3월 15일, 총편 방송국인 JTBC 역시 방송 ‘체험 사람의 현장, 막나가쇼’에서 신천지를 다루었다.

39) 이는 일찍이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가 지적한 관점을 반복한다. 스미스는 1978년 남미 가이아나에서 집단자살을 주도한 인민사원(People’s Temple)의 교조 짐 존스(Jim Jones)를 당시 언론이 ‘변태적 색골’, ‘양성애자,’ ‘과대망상 증 환자,’ ‘악마’ 등으로 몰아간 과정을 분석하며 우리가 기괴한 암만성과 낯선 폭력이 던져주는 공포와 감탄을 느끼는 데에만 도취되어 있다고 일갈했다. 조너선 스미스, 『종교 상상하기』, 장석만 역 (파주: 청년사, 2013 [1988]), 262-263.

40) 신천지에 다니는 자녀를 빼내어 이단상담소에 보내 강제개종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었고 신천지에 선이 해가 없었던 시청자들은 신천지보다 아무리 자녀라 해도 이미 다른 성인을 의사에 반하여 특정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41) 다만 법원은 방송이 신천지를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한 부분은 신천지 신도들이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천지 자체를 불법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천지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JTBC의 ‘막나가쇼’ 역시 ‘PD수첩’과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신천지를 타자화했다. 특히 ‘막나가쇼’가 앞서 언급한 ‘PD수첩’이나 ‘풍문으로 들었SHOW’와 차별점을 보인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를 가정 파괴 집단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를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집단 세뇌’의 일종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전자는 전파연 대표인 신강식 씨를 등장시키는 기획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연 당시 3년 6개월 동안 가출한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던 전력, 아들이 그런 자신을 도리어 고소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도 방송 중에 꺼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자의 전략,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출연하여 신천지 신도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이 신천지 포교 방식과 신도의 정신 상태를 집단 세뇌의 관점에서 보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⁴²⁾ 그는 신천지가 상담 기법을 통해 포교를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사회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보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멘토링이나 코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한 번 거른 뒤 접근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아예 「트루먼쇼」의 한 장면을 방송 중에 삽입했다.



[사진 4] JTBC의 ‘막나가쇼’의 한 장면

이 외에도 코로나 유행 시기에 신천지를 ‘사회적 바이러스’나 ‘암적 존재’, ‘오물’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는 매체나 언론은 쉽게 찾을 수 있다.⁴³⁾ 대표적으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0년 3월 2일 「이만희와 신천지, 바이러스의 재공습」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방송에서 사회자는 중국 우한에 신천지 지부가 존재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신천지의 초법적이고 집착적인 선교열 사이의 상관성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있잖아, 폐렴.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밤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우한]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죠?”라고 밝힌 녹취록과 영상을 공개했다. 사회자는 31번 확진자를 ‘슈퍼전파자’로 부르는 것에 빗대어 ‘신천지 = 슈퍼전파자’라는 말놀이(pun)도 꺼냈다. 종교사회학자 리스 월리엄스(Rhys Williams)는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의 ‘정결(purity)’과 ‘위험(danger)’의 변증법적 개념을 확장하여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반대파들에 대한 언어적 묘사가 ‘꾀죄죄한’ 히피족이나 ‘더러운’ 공산당원처럼 미학적인 불결함(aesthetic impurity)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어냈다.⁴⁴⁾

IV. 카리스마: 박해와 성취, 구원의 완성

42) 방송에서 양재웅 씨는 ‘피암시성(suggestibility)’을 언급하면서 특히 20대 초반이 많았던 신천지 신도들이 세뇌되는 데 피암시성이 맹위를 떨쳤을 거라고 설명한다. 피암시성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본인의 생각과 의견, 태도,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43) 일례로 ‘4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로 암약해 오며 대중을 기만하고 혹세무민하는 존재’(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나 ‘코로나 바이러스-19 보다 더 심각한 신천지 바이러스’(「새한일보」 오피니언), ‘신천지, 질병 무시하고 동선 숨기고 ‘바이러스 온상’ 역할’(「국민일보」) 같은 표현들이 쉽게 검색된다.

44) Rhys Williams, “There’s power in the dirt: impurity, utopianism and radical politics,” in Robbie Duschinsky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를 보라. 월리엄스가 꼬집은 흥미로운 점은 주류 매체에서 그려지는 방식뿐 아니라 이러한 낙인에 반항하는 항변가 집단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이러한 불결함의 언어를 선택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정결과 불결의 담론을 역으로 변형시켜 사회질서를 뒤엎으려는 전복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종교운동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하여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기존 제도 종교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 질서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카리스마(charisma)’를 언급했다. 전통적으로 종교사회학에서 카리스마는 종파(sect) 운동이 기존 사회에 대해 도전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 정체성을 신적 권위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본다. 교조들은 신과의 직접 접촉이나 계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영적 능력을 주장하며 추종자를 모은다. 카리스마가 보여주는 이 비범성은 초기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며 기존 종교의 관료화된 권위를 대체한다.⁴⁵⁾ 이를테면,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이해하고 실현한 자로서 자신만이 해석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신천지라는 종파 운동에서 작동하는 카리스마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단감별사와 한편에서 이른바 ‘강제 개종’ 교육을 담당했던 이단상담소의 희망과 달리, 본 연구는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건재하며 도리어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사회적 낙인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2020년 2월, 대한민국에서 1차 코로나-19 대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 사회로부터 행정력을 고의로 무시하는 불법적 단체로 규정되어 사회적 지탄과 행정적 압박을 받은 것과 동시에 언론과 대중 매체로부터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반사회적 단체로 낙인찍혀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받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교인 빼내기’로 위기의식을 느낀 국내 주류 개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 단체로 규정했던 각 종회의 결의문은 이만희의 카리스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천지는 자구적인 이미지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고프먼은 낙인찍힌 당사자가 두 가지 전략을 모색한다고 보았다. 먼저 자신과 같은 동료 집단 안에서 낙인 보유자는 삶을 조직하는 데 자신의 불리함을 그 기초로 삼는다. 동일한 낙인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지지를 얻고, 편안함과 소속감,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낙인 보유자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반쪽짜리 세계’를 체념해야 한다. 동시에 낙인 보유자는 자신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나 기관을 지지하거나 직접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우기도 한다.⁴⁷⁾ 신천지 역시 「천지일보」라는 공식적인 스피커를 통해 대외적 전략과 대내적 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활용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매체 비평의 일환으로 「천지일보」의 보도 내용과 논조, 기사량을 분석하여 신천지가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는 신천지의 대외적 전략

먼저 사회적 낙인에 직면한 신천지가 작동시킨 대외적 전략을 보겠다. 첫 단계는 빠르고 적극적인 사과였다. 신천지는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발 빠르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동일선상에서 그간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두문불출하던 이만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전피연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거친 구호들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국민을 대상으로 사죄의 차원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깊이 조아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을 의식한 듯 신천지는 스스로 정상 종교단체임을 선언하려는 것처럼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천지가 일부 개신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가정을 해체하는 패륜적 이단 집단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공적 책임에 응답하는 동일한 시민적 주체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45) 카리스마는 원칙적으로 비제도적이고 반(反)관료적이며 불합리하다. 사제(priest) 집단이 구축한 기존 종교 제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예언자(prophet)는 하늘에서 받은 카리스마로 종파를 창출한다. 카리스마는 교조의 즉 음으로 위기를 맞는데, 이 위기는 자연스럽게 단체 내에서 카리스마의 적통을 이을 후계자 이슈를 제기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파가 소멸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화와 제도화가 요구되는데, 베버는 이를 두고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라고 불렀다.

46) Goffman, 20-23. 고프먼은 해당 사례로 이혼자나 노인, 비만자, 신체장애인, 또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을 언급한다.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조직의 기본 단위로 기능한다. … 특정 낙인 범주에 속한 많은 이들은 전체 구성원들을 가리켜 ‘집단(grou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 ‘우리(we)’나 ‘우리 백성(our people)’ 따위로 호명하기도 한다.”

47) “예를 들어, 어떤 낙인 범주의 구성원들은 언론이나 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사무국이나 로비 기구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는 그 조직이 그 범주 내부 출신의 사람, 즉 ‘우리 백성’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외부의 정상인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생길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동일한 낙인 범주를 위한 활동 집단들 사이에도 미묘한 경쟁이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내부자 관리’와 ‘외부자 관리’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Goffman, 24.

었다. 신천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인 퍼포먼스는 총회장 이만희가 연출했다. 2020년 3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이만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총회장이 언론 앞에 강제로 불려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천지와 이만희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만희가 자비로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연수원으로 직접 직원을 보내 강제 검체 채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영생불사로 알려진 그의 존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도 수 30만 명이 넘는 유력한 신종교의 교조를 직접 본다는 흥분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마스크로 가려진 넙죽한 하관에서부터 이따금 입김으로 부옇게 흐려진 안경, 두 번이나 큰절을 할 때 소매 사이로 노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⁴⁸⁾ 유독 크리스털처럼 흰 양복을 즐겨 입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쥐색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를 밭쳐 입은 모습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언론과 대중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그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는데 어눌한 발음과 떨리는 목소리로 “언론 보도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이만희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 일부는 아래와 같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국민에게 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큰절) 국민 여러분, 이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 제대로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 그 고마움과 동시에 이 정부에 대해서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큰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⁴⁹⁾

이만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식의 백기 투항이었다. 성명서 중에 ‘용서’라는 단어가 두 번, ‘사죄’라는 단어가 무려 일곱 번이나 나올 정도였다. 두서없이 이뤄진 기자회견의 골자를 정리하면, 고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신천지가 나름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종식에 진력하고 있으니 신천지는 죄인의 마음으로 적극 협조, 협력할 것이다, 신천지를 대신하여 정부 당국이 사태를 수습하는 작금의 상황에 무한한 고마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회견 중에 이만희는 자신을 일컬어 ‘이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가 갖는 절대적 지위와 신적 권위를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다. 실지로도 신천지 커뮤니티를 보면, 총회장이 언론 앞에서 쪄쩔매며 두 번이나 큰절을 하고 자신을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적잖이 동요하는 반응을 찾을 수 있다.⁵⁰⁾ 「천지일보」는 이만희가 대중 앞에서 큰절 하는 사진은 단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아래 [사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손에 성명서를 들고 있는 사진만을 게재했다. 이는 자신들이 ‘악’이라 규정했던 세상 위정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는 비굴한 이미지를 가급적 숨기고 대신 시민사회 앞에 당당히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48) 당일 이만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진 금색 시계를 차고 나온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과 신천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천지가 곧바로 해당 시계는 신도 중 한 명이 오래전 선물로 준 것이며 진품도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49) 2020년 3월 2일 당일 이만희 기자회견 영상은 지금도 https://www.youtube.com/watch?v=Q2a_roKGohE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사진 5] 기자회견장에서 이만희가 큰절을 올리는 장면(좌)과 「천지일보」가 지속적으로 실은 총회장 사진(우)

신천지의 두 번째 대응은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하나의 운동, 즉 가시적이고도 자발적인 협조의 형태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완치된 다대오지파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혈장 공여 운동’을 전개했고, 7월 이후로는 이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대되었다. 이 사실은 자체 신문사인 「천지일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집단 감염의 원흉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신천지는 자신이 국가적 위기 앞에 이타적인 행위를 실천하고 있음을 적극 보여주려 했는데, 이는 평화운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 오던 이전 이만희의 행보와 연장선상에 있는 운동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반사회적이고 가정 파괴적인 집단’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낙인과 대조적으로 이번 위기에서 신천지가 스스로 생산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친사회적 종교 공동체’라는 것이었다. 완치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혈장 공여 운동을 벌이거나 집회 장소를 폐쇄하고 교인 명단을 적극 제공하는 등 흔쾌히 방역에 협조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훌리고 외부의 비난을 뒤집어 과도한 탄압으로 재서술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도덕적 우위의 위치로 스스로를 이동시키고자 했고, 이를바 ‘역전된 스티그마(reverse stigma)’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도들의 공여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보혈’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승화시켰다.⁵¹⁾ 2020년 2월 18일 이후부터 신천지 신도는 여러 언론과 대중에 의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회적 오물’이자 ‘암적 존재’, ‘더러운 세균’으로 취급되었는데, 이러한 피의 메타포는 기존의 사회적 낙인이 혈장 공여 운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끌었다. 6월 24일자 「천지일보」에는 신천지 코로나-19 완치자 4,000여 명의 혈장이 단순 환산가로도 100조 원에 이른다고 적시했다.⁵²⁾ 말 그대로 ‘보혈(寶血)’인 셈이다. 이는 전날 「천지일보」 사설의 논조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인데, 신천지의 혈장 공여 덕분에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⁵³⁾ 낙인찍힌 개인이나 집단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놓고 매우 세부적인 논쟁과 격렬한 논의의 장에 설 수밖에 없으며 고프먼은 이를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로 규정했다.⁵⁴⁾ 이러한 전략은 사회적 낙인을 되려 자산화하려는 정치

51) 6월 29일자 「천지일보」에 실린 이만희의 감사 편지에는 이러한 피의 메타포가 등장한다. “사랑하는 대구 다대오지파 성도님들 수고하십니다. …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다대오지파 성도님들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를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피였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신앙인들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지금, 우리의 피(혈장)가 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코로나-19 종결)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혈장 공여를 할 마음을 모아 주심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886>

52) 「천지일보」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의 바이오업체 ‘캔터 바이오크넥스’가 완치자 혈액 1ml(20방울)을 최소 350달러에서 최고 4만 달러에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바이오업체의 실거래가인 1ml,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신천지 완치자 4,000여 명의 혈액 가격을 환산하면 약 2,000억 원이 되고, 완치자 혈장치료제 개발을 전담할 녹십자가 밝힌 1인당 완치자 혈액량인 500ml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된다는 것이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408>

53) 6월 23일자 「천지일보」 사설의 일부다. “죄인 취급 받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완치자 4000명의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다. … 신천지를 통해 4,000명이나 되는 완치자 혈장을 공여받게 되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신천지로 인해 ‘한국의 방역 수준’이 전 세계의 칭송을 받게 될 듯싶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죄로 세무조사, 검찰조사에 이어 1,000억 원 민사소송까지 당한 신천지, 신천지는 이런 정부와 자자체에 ‘완치자 혈장 집단 공여’로 답했다. … 온갖 팝박 속에서도 선의를 베푸는 신천지를 이용만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028>

신학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적 담론에 개입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박해 담론이 단지 정체성 방어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도 작동함을 보여준다. 2020년 7월 14일자 「천지일보」는 혈장을 공여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사진과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혈’을 한국 사회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신천지라는 개인적인 낭패감이 혈장 공여 이후 자부심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의료진분들의 도움 받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것들을 또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다 치료를 받고 오히려 나의 혈장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임하게 되었습니다.”⁵⁵⁾



[사진 6] 「천지일보」에 실린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 집단 공여 사진

신천지가 내세운 세 번째 전략은 외부 종교 집단, 특히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과의 비교를 통해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신천지의 상대적 우위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신천지는 주일마다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 인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스스로는 정부 방역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종교 집단이라는 서사를 구축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소 주류 개신교 계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온 신천지가 도리어 주류 교회를 비판하는 ‘친정부적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전략은 신천지가 고립을 탈피하고 외부와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탐진하는 일종의 정치적 포지셔닝으로 읽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 하에 자체를 당부하는 당국의 요청에도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개신교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는 사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먼저 받았던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이들 극우 단체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⁵⁶⁾ 2020년 12월 31일자

54) Goffman, 124.

55) 김미라, “신천지 신도 500명 단체 혈장 공여, 환자 살리는 효과적인 약재로 될 듯” 동시에 「천지일보」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인 김신우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의 인터뷰도 실으면서 신천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https://www.news 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440>

56) 김민아는 코로나-19 시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서로 다른 개신교 단체가 상이한 반응을 보인 구조를 천착했다. 보수적 개신교 단체는 종교와 사회의 분리를 고수하므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마지못해 따랐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는 종교와 사회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안전보다 종교적 가치를 더 중시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적 개신교 단체는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 종교 모임을 기꺼이 포기했고 이를 또 다른 사회 참여의 방식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민아는 신천지 역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극우 개신교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김민아의 연구는 1차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신천지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보인 극우 개신교와 차별화하려는 역전된 스티그마 전략은 놓치고 있다. Mina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in the COVID-19 era: the case of protestantism in South Korea,” *Religions* 12/12 (2021): 1102.

「천지일보」에는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대응과 2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사랑제일교회의 대응을 맞비교하며 전광훈이 이끄는 극우 개신교 단체의 물상식한 태도에 분개했다.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사랑제일교회는 8월 15일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것이나 이만희와 달리 전광훈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신천지에게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었다. 나아가 배임과 횡령, 부자세습, 성적 타락 등 그간 한국 개신교가 보여준 부도덕한 종교인의 민낯을 꼬집으며 청렴한 신천지를 대비시켰다.

신천지가 불법행위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게 팩트다. 반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법에 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기성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 2,000건의 유죄전력이 확인됐다. 이는 목회자 6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에 달하며, 이는 일반 국민의 열 배가 넘은 범죄율이다. 당장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한기총 명예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등 국내 유명교회 목사들만 거론해도 배임, 횡령, 부자세습, 금권선거, 불륜 등 각종 반사회적 행각과 관련 없는 목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⁵⁷⁾

2)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는 신천지의 대내적 전략

사회적 낙인이 집요해지고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반한 종말론적 서사를 동원하여 내부의 동요를 억제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외부의 공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정당한 박해’며, 십사만사천의 구원 공동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라는 해석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의 기관지인 「천지일보」는 교리적 해석과 현실 정치 상황을 종말론적으로 연결하는 보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현재의 박해가 종교적 예언의 성취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는 고전적인 박해-구원이라는 메타서사를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심리적 동요를 관리한 대표적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박해와 순교 담론은 단지 외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부 통제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박해를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순간, 외부 비판은 ‘사탄의 공격’이 되고, 이탈은 ‘배도’로 간주된다. 신천지는 이러한 틀 안에서 배교자와 내부 비판자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며, 신자들에게 종말의 긴급성과 충성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은 신종교 운동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략으로 고통을 의미화함으로써 내부 균열을 미리 봉쇄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천지의 대내적 전략 역시 세 가지 구조로 응용되었다.

첫째, 신천지는 자신들의 피해자 서사를 ‘희생양(scapegoat)’ 서사로 전환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천지일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적 정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신천지가 선택되었다는 종교적 서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신도들에게 신성한 사명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천지일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마녀사냥’이다. 4월 28일자 「천지일보」에는 ‘코로나 100일, 마녀정치학으로 본 신천지 마녀사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는 신천지가 무분별하게 마녀로 몰리는 현 상황을 관동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짓 말을 퍼뜨려 조선인을 늑살한 것과 히틀러 나치 정권 시기 유대인을 학살한 비극적 사례에 비유하고 있다.⁵⁸⁾ 뿐만 아니다. 7월 18일자 「천지일보」 시론에는 언론의 조리돌림을 당하는 이만희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에 빗대거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한 목소리로 신천지에 죄를 묻는 모리배들을 내심 무죄를 확신했던 빌라도가 민란이 두려워 세 번에 걸쳐 손을 씻은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⁵⁹⁾ 동시에 「천지일보」는 연일 정치권이 신천지를

5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23119>

58) “일제강점기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요동치자, 일제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선인들에게 돌리도록 만들었다. 이 일로 당시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이유 없이 희생을 당했다.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코로나-19 관련 31번 확진자와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 역시 그간의 마녀사냥과 특징이 별반 다르지 않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779>

59)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며 흄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텔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했다. ...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의 죄 없음을 세 번에 걸쳐 손을 씻어 증명했으나 기득권이 된 종교와 정치는 마치 모리배(謀利輩)가 되어 여론몰이를 만들어 민란을 유도했고, 결국 빌라도는 민란이 두려워 그들의 손을 들어줘야 했다. ...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할 천택지인(天擇之人) 곧 한 목자를 약속해놨다면 과연 누가 믿을까. 그 역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양이며,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 약속으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 또한 누가 믿을까. ... 당국의 잘못을 신천지에 뒤집어씌워 마녀사냥하는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앞에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봐 신천지 제거에 골몰해왔고,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방법을 찾던 터에 정치와 종교 나아가 기득 언론까지 합세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의기투합으로 연합전선을 펴고, 2천 년 전과 같이 여론몰이를 통해 온갖 죄를 다 뒤집어씌우며 ... 살인죄로 고발해 평화의 일을 못하게 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856>

두들기며 이전까지 미미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치적 입지를 마련했다고 비난했다.⁶⁰⁾ 이러한 논리는 2021년 1월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만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그때부터 신천지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될 때마다 손가락질 받으며 지난 한해 죄인 아닌 죄인 신세가 됐고, 유구무언의 희생양이 됐던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구속과 재판 등 박해였다. 이들의 범죄 혐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방해했다는 것인즉 한마디로 국민여론을 기화로 덤터기 써운 격이다. 하지만 검찰이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히 주장했던 방역 방해 혐의는 법원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⁶¹⁾

이어서 「천지일보」는 2월 27일 울산과 3월 9일 정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두 명의 신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순교자(martyr)’ 서사를 생산했다. 특히 정읍에서 투신자살한 박서인 씨 사례는 본인의 신천지 신앙 때문에 그간 남편과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를 비관해 왔다는 이야기를 덧대면서 강제개종을 비롯한 신천지 박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격상했다.⁶²⁾ 이와 같은 담론은 ‘집단적 속죄’의 내러티브를 통해 박해의 현실을 초월적 의미로 치환하고, 신자들이 겪는 고통을 신학적 보상 체계 안에 포함함으로써 내부 비판의 가능성은 차단하는데 가능했다. 이에 관해 종교사회학자 야나코네(Laurence R. Iannaccone)는 도리어 사회적 낙인이 일정한 감시 없이도 집단 내 무임승차자(freeriders)를 걸러내고(screening) 공공재의 효용성을 올리는 경제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말한다. 종교경제학적 관점에서 분명 사회적 낙인을 통해 일정한 비활성 신도들을 걸러내고 집단 내 나머지 구성원의 협신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행동을 규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집단의 순효용성은 증가하고 교조의 카리스마는 상승한다. 야나코네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들이 모인 종교 집단이 낙인과 자기희생, 그리고 기괴한 행동 표준들을 끌어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⁶³⁾

셋째, 신천지는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교주 이만희의 카리스마 권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특히 대구에서 열린 ‘십만 수료식’은 낙인의 중심지에서 종교적 성공을 재확인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신자 수의 증가는 단지 통계적 의미를 넘어 이만희의 영적 리더십이 여전히 신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다. 베버의 카리스마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교주의 초월적 권위가 강화되는 전형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박해가 극심했던 2020년에도 신천지는 2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2021년에도 2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또다시 ‘십만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얻었던 사회적 낙인이 주는 충격으로

60) 3월 13일자 「천지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 특단의 조치’ 지시 이후 반짝 지지율이 올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해 지지율이 오르자 기분이 좋았는지 신천지 산하법 인 취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천지 압수수색에 몸소 나서 대권후보 3위까지 올랐으니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신천지 총회장을 ‘교주’라고 운운하며 신천지 이단 프레임으로 입지 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기득권이 신천지를 싫어하는 건 들여다보면 급성장하는 신종단에 대한 시기와 탄압이다. 이러한데도 기득권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30만 국민[신천지 신도]을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병균 보듯 하고 이리저리 이용하고 팔아먹은 지도자들인데 지지율은 신천지 덕분에 올라가고 잘못은 신천지 덕분에 가리워졌으니 신천지에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앞서서 신천지 신도 인권탄압을 하고 언론이 장단을 맞추는 사이 신천지 여신도 두 명은 가정폭력에 숨지고, 수천 명은 이혼 위기에 처하고 수천 명은 직장 해고 위기에 놓이고, 수만 명은 명단이 노출돼 사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는데도 신천지라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직 별 탈 없으니 신천지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736>

6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213>

62) 2020년 3월 20일자 「천지일보」는 신천지의 희생양 서사를 기사로 엮은 대표적 사례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지역단체 등이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차별, 폭행 등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조치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산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혐오는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달 [2월] 26일 울산에서 60대 신천지 교인이 빌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3월] 9일 전북 정읍에서 여성 신천지 교인 A씨가 스스로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두 교인 모두 사망하기 직전까지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735>

63) Laurence R.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1992): 271-291.

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신감이 「천지일보」 기사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는 신천지가 강조해온 예언의 성취이자 신학의 승리이며 기성 개신교단에 대한 복수였다. 2022년 12월 20일자 「천지일보」 시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예수교회 대표[이만희]는 국민들에게 절을 하며 사과를 해야 했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관원들에 끌려가 약 100일의 옥중생활을 감내해야 했고, 주인 잃은 교회와 성도들은 항변 한번 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은 물론 심지어 팁박과 조통을 넘어 죽음(4명)까지 당해야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진 팁박과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었다. 더 기적 같은 일은 금년(2022년 11월) 또다시 신천지예수교회 팁박과 마녀사냥의 상징적 도시 대구에서 질서 정연한 신천지예수교회 십만 수료식(10만 6,186명)을 가졌다는 사실이다.⁶⁴⁾

이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 신천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중적 전략을 통해 낙인을 관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책임 수용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정상 종교’로의 재포지셔닝을 시도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종말론적 내러티브와 종교적 희생 서사를 통해 조직적 일체감을 고양시켰다.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외부의 사회적 낙인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재전유(reappropriation)하여 새로운 종교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했다. 이는 현대 종교 집단이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의 중요한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국가적 위기 속에서 외부 압력에 대응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교조의 카리스마 권위를 재확인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재구성한 일련의 과정을 매체비평을 통해 분석했다.

V. 나가는 글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국내 그리스도교계 신종교인 신천지가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적 낙인을 얻었는지, 동시에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는 정치신학적 전략을 어떻게 기획하고 전개했는지 매체 비평을 통한 분석을 수행했다. 사회심리학자 고프먼의 낙인 이론을 논의의 틀로 가져와 신천지가 단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대외적이고 대내적인 종교적 서사와 교조 이만희의 카리스마를 재구성하는 다층적 전략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재확보하려 했음을 보았다. 특히 신천지의 대표 기관지인 「천지일보」를 매개로 한 담론 분석은 신천지가 자신을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 의인이자 순교자로 위치시키고, ‘위기는 곧 종말론적 성취’라는 내러티브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략은 종교적 의미망을 통해 사회적 오명을 신성한 시련으로, 스티그마를 카리스마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역설적 효과를 냈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의 혐오와 배제가 종교적 결속과 상징 자원의 재활성화로 귀결되는 현상은 현대 신종교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가 구사한 정치신학적 전략은 대외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의 이중 구조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혈장 공여 등 친사회적 행동을 전시하며, 정상 종교로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동시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극우 개신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역타자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신들을 ‘사이비’나 ‘이단’으로 손가락질하던 교단들과 비교하여 도덕적 우위를 주장했다. 대내적으로는 낙인과 박해를 요한계시록의 서사 위에서 해석하면서 내부 신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죄씻음과 영적 승화를 위해 번제단에 오르는 희생양처럼 집단적 희생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새요한’ 이만희 총회장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의 일상화가 시간이 흐르며 종파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역적 현상이지만, 신천지는 팬데믹이라는 외부적 충격에도 오히려 코로나-19의 진원지였던 대구 한복판에서 ‘십만 성도 수료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성을 입증함으로써 집단 정점에 오른 이만희의 카리스마를 재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 종파 운동 가운데 카리스마적 권위의 쇠퇴나 일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64) <https://www.newsco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08>

재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물론 본 연구는 신천지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종교가 어떻게 종교적 상상력과 전략적 실천을 동원하여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노출되었다. 첫째, 매체 비평 자료를 「천지일보」에 국한했기 때문에 신천지의 담론이 신도 개개인의 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담론의 수용 효과를 검증할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향후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일한 시기 유사한 낙인을 경험한 다른 신종교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위기 서사의 유형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낙인과 카리스마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SNS 및 디지털 미디어가 담론의 확산과 재구성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고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낙인과 카리스마, 미디어라는 세 축이 교차하는 현대 종교 현상의 역학을 해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구의 시론적(試論的) 출발점으로서 신종교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 발휘하는 종교적 적응력의 구조와 논리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